

2000년 이후 한국문학 콘텐츠의 세계화 경험과 방향

곽 효 환*

1.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열망
2. 한국문학작품의 번역과 해외출판
3. 한국문학의 해외교류와 세계체험
4. 맺는 말

〈국문초록〉

한국문학의 오랜 열망 가운데 하나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이다. 이는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열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또다른 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 속에 서구적 개념의 근대문학을 수용한지 100여년이라는 연륜이 쌓이면서 오랫동안 세계문학의 주변에서 수용자의 입장에 처해 있던 데서 벗어나 중심으로 진입하여 세계문학의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만한 역량이 쌓였다는 자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문학계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의 노력은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러한 열망을 담은 광의의 표현인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본격적인 노력은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968년 이웃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한 자극 등을 계기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같은 조직적인 지원은 1992년 대산문화재단이 체계적인 번역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고 과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민간으로는 대산문화재단이, 관으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다양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에는 한국문학 콘텐츠의 번역과 출판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의 문학과 교류하고 또 세계문학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문학이 세계로 진출해 나아가는 과정을 간단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또는 세계경험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한국문학의 세계화, 세계문학 시민, 해외교류, 세계경험, 번역, 해외출판, 소통, 문학담론

1.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열망

한국문학의 오랜 열망 가운데 하나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이다. 이는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열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인정받고 싶은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 속에 서구적 개념의 근대문학을 수용한지 100여년이라는 연륜이 쌓이면서 오랫동안 세계문학의 주변에 머물면서 수용자의 입장에만 처해 있던 데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세계문학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만한 역량이 쌓였다

는 자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계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격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문학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기능에서 기인한다. 문학은 개인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타자와의 소통을 전제 또는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시대와 삶을 반영하는 핵심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 독특한 지위와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족 국가 인종 국경 이념 종교 등 20세기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수많은 경계를 넘어서 사람과 재화, 자본 등의 급속하고도 자유로운 넘나들을 지향하는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 받는 일방향적이고 불평등한 교류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사상과 의식의 산물이므로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나아가 세계와 세계 간의 평등한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민족의 삶과 사상과 역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은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대등하게 한 집단의 문화를 다른 집단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쉽지 않은 관문이 전제되어 있다. 1차적으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콘텐츠가 옮겨지는 번역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토양과 기호가 다른 외국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만들고 이와 함께 홍보,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은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이러한 열망을 담은 광의의 표현인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1968년 이웃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한 자극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작

되었다. 이같은 조직적인 지원은 1992년 대산문화재단이 체계적인 번역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고 본격적인 과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민간으로는 대산문화재단이, 관으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더욱 다양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문학 콘텐츠의 번역과 출판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의 문학과 교류하고 또 세계문학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문학이 세계로 진출해 나아가는 과정을 간단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문학 콘텐츠¹⁾의 세계화 또는 한국문학의 세계경험 현황과 성과, 그리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문학작품의 번역과 해외출판

(1) 한국문학작품의 번역과 해외출판 개황

문학을 포함하여 문자 또는 문자를 중심으로한 문화콘텐츠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또 하나의 인식론적 공간에서 다른 인식론적인 공간으로 옮겨 갈 때, 비로소 의식되고 이론적인 관심의 대상이”²⁾ 되며 실질적인 영향과 수용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면에서 번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1) 본고에서 한국문학콘텐츠란 좁게는 한국문학작품의 번역물로, 넓게는 세계교류를 경험한 작가와 작품을 포함한 한국문학 전체를 의미한다.

2) 김우창, 「번역과 문학의 인식 지평」, 『한국문학 해외진출 10년을 말하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제 5회 세계번역가대회 논문집, 한국문학번역원, 2011, 14쪽.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등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낳는다. 한 언어가 그것도 문학텍스트가 다른 언어로 옮겨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축적된 개인과 사회의 역사·문화적인 의식과 전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근친성과 공유점이 없는 상태에서 한 시대 삶과 정신 문화의 결정인 문학작품을 번역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번역과 해외출판, 즉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의 역사는 100여년이 넘는다. 또한 세계화를 의식하고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춘 본격적인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먼저 한국문학의 해외소개는 멀리는 19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상으로는 일종의 구비문학작품집인 『한국민담집 *Korean Tales*』이 1889년 미국 퍼트넘(Putnam)사에서 발간된 것이 처음이다. 이어 1892년 『춘향전 *Le Printemps Parfumé*』이 프랑스에서, 1893년 『한국 전래동화와 민담 *Korea-Märchen und Legenden*』이 독일에서 각각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본격적인 한국문학 해외소개로 보기는 어렵다. 문학작품의 번역이라기보다는 구한말 서구 열강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동방의 옛이야기’를 소개한 번안³⁾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본격적인 한국문학 해외소개의 출발점은 캐나다출신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에 의해 1922년 영국에서 출판된 『구운몽 *The Cloud Dream of Nine*』⁴⁾부터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제임스 게일은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을 낼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하였고 한국을 소개하는 여러 권의 저서와 한국어문법에 관한 저작을 남긴 바 있으며 원작 『구운몽』 또한 한국의 사상과 깊이를 담고 있는 대표적 고전이기 때문이다. 현대문학작품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40

3) 김종길, 「한국문학 세계화의 현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민음사, 1997, 17쪽 참조.

4) 권영민,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그 실상과 문제점」,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459-460쪽 참조.

년 일본에서 출판된 『朝鮮代表小説集』과 1947년 체코에서 출판된 카프의 중심작가인 김남천의 장편소설 『대하Proud』를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문학작품은 1960년대까지는 민담집 중심으로 고전문학들이 주로 번역, 출판되었고 1970년대 들어와 현대문학에까지 확대되는 양상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학자나 선교사 등에 의해 학술적인 관심이나 소개차원에서 한국의 정서나 전통이 담긴 고전소설과 민담이 주 번역대상이 되던데서 벗어나 현대문학작품이 주로 번역, 출판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서부터이다. 1968년 일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한 자극 등에 영향을 받아 문예진흥원(현 문화예술위원회)이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1990년 오에 겐자부로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일본이 두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를 낸 아시아의 첫 번째 국가가 됨으로써 현대문학작품의 조직적인 번역과 출판은 더욱 강하게 추동력을 받게 된다.

문예진흥원이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4년이지만 황순원 단편소설집 『별The Star』이 홍콩 하이네만아시아출판사에서 출판된, 즉 해외 출판이 이루어진 1980년을 실질적인 기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이 세계와의 교류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가지고 지원기관의 지원제도 아래 꾸준히 번역과 출판을 시작했다는 점과 이후 지원제도가 더욱 체계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양적으로 한국문학 번역 출판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1980년은 의미 있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대산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문학 작품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총 52개국에서 34개 언어로 1천564종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된 것으로 집계된다. 어권 별로는 영어번역이 292종으로 가장 많고 일본어 224종, 중국어가 221종, 불어 214종을 나타내는 등 200종 이상이 출판된 어권이 4개 어권에 달한다. 이어 독일어 171종, 스페인어

5) 곽효환,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1998, 13-14쪽.

96종, 러시아 94종, 체코어 59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이탈리아어 29종, 폴란드어 21종에 이어 관심대상인 스웨덴어로의 번역도 16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어 15종, 루마니아어 10종, 터키어 9종, 헝가리어 7종, 네덜란드어 6종 등 여러 유럽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베트남어 25종 몽골어 8종, 힌디어 6종, 아랍어 5종, 파키스탄어 4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 어권과 지역은 날로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1950년대 83종, 1960년대 75종, 1970년대에 85종이 출판되던 것이 번역출판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239종, 90년대에 350종으로 눈에 띄게 출판량이 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674종으로 90년대 대비 2배 가까운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어권별·국가별 출판현황표 참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 10년을 맞는 과정에서 외형적인 지원규모가 매우 커진 동시에 그동안 번역을 지원했던 결과물들이 가장 활발히 출판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민간 기구인 대산문화재단이 설립된 1992년 이후 매년 20-30종의 번역지원과 출판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문학의 해외소개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2010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111종을 신규 번역지원했고 53종을 출판했으며, 대산문화재단은 20건의 신규 번역지원을 했고 14종을 해외에서 출판했다. 이는 매년 130종이상의 문학작품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70종 가까이 해외에서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양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는 가히 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작품의 연대별·언어권별·국가별 출판현황표〉

(2011년 10월초 현재 대산문화재단 집계)

구 분			-49	50-59	60-69	70-79	80-89	90-99	2000-	미상	소 계	계
언어	국 가 명											
영어	미	국	6	1	4	13	50	51	106	7	238	292
	영	국	1	1	2		12	7	6		29	
	호	주					2				2	
	캐	나					1	2			3	
	아	일						3			3	
	홍	콩	1		2	1	3				4	
	일	본					1				4	
	독	일						1	1		2	
	이	탈		1							1	
	나	이						1			1	
	인	지					1	1			2	
	필	리							1		1	
	한	리							1		1	
불어	프	스	7		1	3	18	73	108		210	215
	록	스					4				4	
독어	샘	부					1				1	171
	미	국										
독어	독	일	4	5	2	4	15	33	105		168	171
	오	스					1	1			2	
서반아어	스	위							1		1	96
	페	아			1	1	3	6	44	1	56	
	멕	시					1	8	18		26	
	페	코						6	3		9	
	폴	루						1			1	
노어	미	상						4			4	94
	러	아	1	16	20	12	4	7	31		91	
유럽어	카	자							2		2	195
	우	호							1		1	
	즈	스										
	베	탄										
	키	스										
	스	아					1	11	18		29	
	웨	드						2	3		6	
	노	텐					1	3	11	1	16	
	르	이				1			1		2	
	브	라					1	3	1		5	
	라	포르						1	8		9	
	갈	투						1			1	
	터	말										
	덴	크							3		3	
	이	스										
	스	라	5	14	5	6	5	10	13	1	59	
	라	엘		3	1	1		8	8		21	
	에	히		1					6		7	
	브	브						2	13		15	
	리	리						1			1	
	아	아							10		10	
	고	고							6		6	
	니	아							1		1	

구 분		-49	50-59	60-69	70-79	80-89	90-99	2000-	미상	소 계	계
언어	국 가 명										
	우 크 라 이 나 세 르 비 아 에 스 토 니 아							1 3 1		1 3 1	
중국어	중 대 미	3	35	16 2 8	5 3 5	36 6 15	22 1 2	56 2	2	175 14 32	221
일어	일 미	4 3	4	10	29 1	51 3	70 1	37	11	216 8	224
아랍어	레 바 이 집							1 4		1 4	5
아시아어	말 레 이 시 아 베 트 남 파 키 스 탄 인 도 (힌 디 어) 인 도 네 시 아 몰 태 폴 국			1		3	1 3 1 1	1 22 3 5 2 7 1		5 25 4 6 2 8 1	51
총 52개국	34개 언어	35	83	75	85	239	350	674	23	1,564	1,564

(2)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문학작품들

100년이 넘는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역사,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이 현지에서 주목받은 사례는 아직 풍성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에 있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어온 질적인 성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값진 경험을 축적한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들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문학은 2000년대 들어 프랑스, 미국, 독일 등지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동반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프랑스 악트쉬드(Actes Sud)출판사가 『금시조L'Oiseau aux ailes dor』를 시작으로 이문열과 이청준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펴내면서 프랑스 문학계와 언론이 한국문학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번역과 해외출판에 만족하던 한국문학은 비로소 해외시장에서 의도한 목적에 가까이 접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90년대 초반 불어권에 한국문학이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는 데에는 악트쉬드와 필립 피키에라는 두 출판사가 계획을 가지고 한국문학을 집중적으로 펴낸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악트쉬드는 최현무·파트릭 모리스라는 뛰어난 번역자와 손잡고 “이문열, 이청준 등과 일종의 전속계약인 ‘대리행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작품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소개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 내에서 상당한 반응이 일었고 이들의 작품은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지에서 다시 번역, 출판되는 등 아를르에 위치한 작은 출판사에 불과했던 악트쉬드는 중견출판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맞”⁶⁾으면서 한국문학과 출판사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최고의 명문 출판사로 꼽히는 갈리마르(Gallimard)가 1994년 『홍길동전 *L'histoire de Hong Kildong*』을 비롯하여 1995년 신경림 시선집 『쓰러진 자의 꿈 *Le rêve d'un homme abattu*』, 한국민담선 『꽃감과 호랑이 *Kaki séché et tigre, et autres contes de Corée*』 등 3종을 잇따라 출간하는 것으로, 그리고 1999년 여름에는 프랑스의 권위있는 시 계간지 『Poésie 포에지』가 한권 전체를 한국시 특집호로 발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양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권으로의 한국문학 소개 성과는 크게 눈의 띄지는 않지만 1989년 폴턴 부부가 번역한 한국여성작가 소설선 『별사 *Ward of Farewell*』(The Seal Press 간)와 영국의 키건 폴(Kegan Paul)에서 출판한 『한중록 *Memoirs of A Korean Queen*』정도가 재판 이상에 들어갔으며 『시인 *The Poet*』(영국 The Harvill Press 간), 『태평천하 *Peace Under Heaven*』(미국 M.E. Sharpe 간)정도가 현지 유력 신문이나 저명한 리뷰지에 소개되었다.

1990년대에 어느정도 반응을 얻기 시작한 한국문학은 2000년대 들어 프랑스를 필두로 독일과 최근 미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발전을 보이게 된다. 대산문학상 수상작인 이승우 장편소설 『생의 이면 *L'Envers de la vie*』 불역판이 2000년에 출판되자 프랑스의 『르몽드 *Le Monde*』, 『라 크로와 *La*

6)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소개 현황과 과제」, 『문예중앙』 2002년 봄호, 중앙 M&B, 2002, 335쪽.

Croix』스위스의 『르 탕*La Temps*』 등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문화면 머리기사나 전면 특집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는가 하면 프랑스 유력문학상인 페미나 상 외국소설부문의 수상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큰 반향이 일었다. 이어 갈리마르와 함께 프랑스 최고의 문학출판사로 꼽히는 쇠이유(Seuil)사가 서정인의 『달궁*TALGUNG*』을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시, 희곡 등도 고르게 출판되고 출판사도 다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불역 『생의 이면』의 성공에 힘입어 새롭게 한국문학 출판에 주력하고 있는 줄마(Zulma)는 황석영의 『한씨 연대기』, 『오래된 정원』, 『손님』,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 그리고 『김유정단편집』 등을 지속적으로 내서 언론과 전문독자층의 호평을 넘어서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6년 줄마에서 펴낸 이승우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La Vie rêvée des plantes*』은 한국문학작품으로는 처음으로 갈리마르사의 폴리오(Folio) 포켓판 시리즈로 2009년 재출간 된다. 이 시리즈는 1972년 시작된 이래 “알베르 카뮈, 생 텍쥐 베리부터 르 클레지오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작가의 대표작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리즈로 이승우 작품이 여기에 포함됨으로써 “이승우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과 함께 대규모 인쇄판 보급으로 인해 불어권에서 다시 한 번 이승우 열풍을 기대케 한다”⁷⁾는 평을 받았다.

또한 유럽 최고 권위와 정통성을 지닌 양대 문예지로 꼽히는 『신프랑스 평론*NRF*』과 『유럽*Europe*』이 각각 한국문학 특집호를 낸 것 또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NRF』가 2009년에 한국문학 특집호를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꾸민데 이어 문학전문학술지로 인문학분야의 A&HCI등재지이기도 한 『Europe』은 2010년 5월호를 “한국의 작가들—한국소설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여 김경욱 김연수 이승우 이인성 정이현 등 1950년 이후 출생한 한국작가 7인의 작품과 해설을 수록한 것

7) 한하경,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대작가 시리즈 반열에 오른 『식물들의 사생활』—佛 갈리마르 폴리오 시리즈로 재출간」, 『대산문화』 2009년 겨울호, 대산문화재단, 2009, 182쪽.

이다. 이밖에 필립 피키에가 2000년대에도 김영하와 김진경 등의 작품을 꾸준히 출판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는 등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은 소개 단계를 넘어 프랑스 문학계 중심부에서 깊숙이 인식받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문화의 관문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의 연착륙은 앞으로의 추이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언어의 전달력과 위상을 고려했을 때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국문학의 영어권으로의 소개는 인적 물적 시간적인 노력에 비해 오랫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공용어’로서 영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수적으로 매우 많은 것과 미국과 영국 출판시장의 번역물 비중이 3%이하로 나타나는 영어권 출판시장의 보수적이고 완고한 여건⁸⁾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같은 영어권에서의 한국문학의 소개는 대학출판사나 소규모 출판사에 의존해오다가 2001년 세계적인 저작권에 이전시인 와일리와 손잡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대형 상업 출판사인 하이페리온에서 출판됨으로써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황석영의 『손님』이 세븐스토리(2005)에서 출간되었고, 또 개리 스나이더,

8) 소피 버컨(Sophie Buchan), 「한국문학과 해외출판사의 선택」, 『글로벌 출판시장과 문학한류의 가능성』 제 6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발표문집, 출판도시문화재단, 2011, 21쪽., 안토니아 바이어트(Antonia Byatt), 「Arts Council funding for literature in England: An overview」, 『문화예술지원기구 비전 전략 개발과정 세미나 —영국예술위원회의 비전 전략 및 문학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51쪽. 영국 웨이든펠드앤니컬슨의 편집자인 소피 버컨은 영국에서 번역서는 출판 서적의 3%에 불과하고 최근 20년간 문학소설 베스트 50권 중 9권이 번역서였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외하고는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바람의 그림자』(*The Shadow of the Wind*)를 비롯해, 요슈타인 가이더, 베른하르트 슬링크, 보리스 아쿠닌 등 대개 문화적으로 근친성이 있는 인근 유럽지역이나 유럽 문화권의 우산 아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예술위원회의 문학감독인 안토니아 바이어트 역시 영국 내 “번역문학의 출판을 나타내는 통계수치도 매년 영어로 출판되는 전체출판물의 3%이내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로빈 데서(Robin Desser), 「한국 문학과 해외출판사의 선택(미국편)」, 『글로벌 출판시장과 문학한류의 가능성』 제 6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발표문집, 출판도시문화재단, 2011, 14쪽. 영역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미국서 출판한 랜덤하우스 크노프 출판사의 부사장이자 『엄마를 부탁해』의 책임 편집자인 로빈 데서는 미국에서는 매년 30만 종의 책이 발간되는데 번역서의 비중은 2-3%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버트 하스 등 세계적인 미국시인들의 후원 속에 명문 대학출판사인 캘리포니아대학출판사에서 발간된 『고은시선집』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영어권의 중심에서 조명 받거나 상업적으로 자리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1년 미국의 메이저 상업출판사인 랜덤하우스 크노프에서 출판된 신경숙의 베스트셀러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판 『Please Look After Mom』은 전에 없는 주목을 받으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최고의 문학출판사에서 초판만 10만부 인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과 최고 공신력을 인정받는 도서관 판매집계기관인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 이런 성과에 힘입은 유럽시장에서의 선정까지, 세계에서 가장 문턱 높다는 미국 문학시장에서 시작된 『엄마를 부탁해』의 돌풍”⁹⁾이라는 평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엇갈리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극찬이 잇따를 정도로 영어판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문학 해외소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꼽힌다. 진출이 매우 어렵다는 미국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상업적 성공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잠재적 이득은 번역판으로 나온 한국 현대소설의 지명도가 갑자기 높아졌다”¹⁰⁾는 부가적인 성과까지 거둔 이 작품은 유럽과 아시아 등 각국에서 집중적으로 번역, 출판되고 있다.

2005년 한국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이 된 것을 계기로 독일의 저명출판사에서 한국문학작품을 다수 출판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독일 최고의 명문출판사인 주어캄프(Suhrkamp)에서는 이문열 박완서 최인석 이창동 4인의 중편을 묶은 『한국중단편선집』을 내면서 1996년 출판했던 고은의 『조국의 별』을 재발간하였고 이문열의 『시인』을 새로

9) 신준봉, 「번역의 ‘붐’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경험」, 『문학선』 2011년 가을호, 문학선, 2011, 178쪽.

10) 브루스 폴턴,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향후 10년의 전망」, 『한국문학 해외진출 10년을 말하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 발표문집, 한국문학번역원, 2011, 193쪽.

이 출판하였다. 또 다른 명문출판사인 DTV는 황석영 『한씨연대기』, 『오래된 정원』 『손님』 등 세 작품을 차례로 펴내어 독일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또 오정희의 『새』는 독일의 리베라투라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며 매년 가을 온 국민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고은 시인에 쏠린 세계문학의 관심 또한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의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후보 거론은 각국 펜클럽에서 자국 작가를 추천하는 의례적인 수상후보가 아니라 세계문학의 중심부에서 그의 작품세계와 삶을 주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문학이 그 어느 때보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가까이 접근한 결과라는 점에서 값지다 할 수 있다. 현재 고은 시인의 작품은 31종이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12개국에서 출판되었고 현재도 여러 작품이 번역 중이거나 출판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많은 번역서와 함께 고은 시인의 독특한 삶의 이력은 세계문학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의 수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수상여부를 떠나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위상이 높아진 데 고은 시인이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는 고은 시인 외에 깊이 있는 텍스트의 생산, 더욱 체계적인 번역, 세계문학과의 면밀한 교류 등 한국문학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기도 하다.

두 번역지원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활발한 번역, 출판지원과 사후 보급 활동 등에 힘입어 한국문학의 해외소개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성과 역시 점점 더 가시화 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몇몇 작가들이 해외 또는 국내에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관리와 수출 그리고 번역자 선정과 번역의 수준 관리에 까지 나서고 있는 것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3. 한국문학의 해외교류와 세계체험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지원과 함께 크게 활성화된 것이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교류, 그리고 한국문학의 세계체험이다. 외국어로 작품이 번역, 출판되었거나 출판을 앞둔 작가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낭독회, 독자와의 만남, 언론인터뷰 등을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문학교류 방식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두 지원기관에서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번역, 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의 홍보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문학교류는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거나 세계문학의 중심담론을 논의하고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문학의 교류에 있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문학과 교류 방식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변화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문화교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문학교류가 외국문학이나 세계 저명작가들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는 것이었다면 2000년 이후의 문학교류는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하는 상호적인 영향과 수용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역시 두드러진 특징이다.

여기에는 세계문학의 중심에 있는 해외 문호들을 대거 초청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함께 당대의 문학적 담론을 함께 논한 2000년 서울국제문학포럼이 그 중심에 있다. 제1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은 월레 소잉카, 피에르 부르디외, 마거릿 드래블, 개리 스나이더, 가라타니 고진, 이스마일 카다레 등 해외 저명작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계를 넘어 글쓰기(*Writing Across Boundaries*)”라는 주제로 2000년 9월 처음 열렸다. 2005년 5월에 개최된 제2회 포럼은 “평화를 위한 글쓰기(*Writing for Peace*)”를 주제로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문학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에 겐자부로, 장 보드리야르, 르 클레지오,

오르한 파무크, 베이다오, 모옌 등 해외 문호 19명이 참가해 국내 작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그리고 올해 2011년 5월 열린 3회 포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크든 작든 삶의 틀과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The Globalizing World and The Human Community*)”에 대해 3일동안 논의했다. 여기에는 르 클레지오와 가오싱젠이라는 두명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아프리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지목 받는 벤 오크리, 前 영국 계관시인이자 부커상 심사위원장 앤드루 모션, 유럽 최고의 지성 앙투완 콩파농 등 세계문학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14명의 문인이 초대되었다. 서울국제문학포럼은 매년 50-70여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일주일 동안 한 목소리로 경계넘기와 평화비전과 세계화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류한 보기 드문 문학 축제이다. 십여 년동안 세 차례 치러진 서울국제문학포럼은 기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정신과 세계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작가들은 글쓰기를 통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가를 성찰해보려고 노력”¹¹⁾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서울에 모여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당대의 문제와 문학(작가)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정례적인 담론의 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을 경험하는 새 장을 연 동시에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행사 역시 한국문학이 1년여 이상 동안 유럽에서 세계문학과 지속적으로 교류한 큰 무대로써 값진 체험이 아닐 수 없다. 독일 유수의 출판사에서의 한국문학 출판이라는 성과 외에 유럽의 독자들에게 한국문학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갖게 되며 소통의 자신감을 얻었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과 관련하여 주빈국 한국과 관련된 행사를 다룬 독일언론의 기사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1천796건으로 이전의 다른 주빈국과 비교해볼

11) 김성곤,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급변하는 시대정신과 세계상황 속의 삶을 논하다」, 『대산문화』 2011년 봄호, 대산문화재단, 2011, 133쪽.

때 5-10%가량 증가한 수치¹²⁾를 보이는 등의 외형적인 성과와 함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 이후 몇 년 내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앞선 몇몇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며 후속적인 기대감을 품게 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의 작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창설하여 서울에서 첫 대회와 2010년 일본 기타큐슈에서 두 번째 대회를 치르고 2012년 중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동아시아문학포럼은 동아시아 공동가치와 미래비전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학교류의 틀이다. 오랜 세월동안 가장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불행한 근대사와 상존하는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던고 지식인이자 예술가인 세 나라의 문학인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 공동가치를 탐색하고 평화비전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포럼은 한중일의 대표적인 주류 작가와 지식인들이 참가하고, 3개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각각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며, 2년마다 3개국에서 순회개최하며 향후 동아시아의 주변국가의 참가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2007년 전주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아프리카작가페스티벌(AALF)은 서구중심의 문학담론에서 벗어나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과 교류와 연대 그리고 새로운 모색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2010년부터 인천에서 인천AALA(Asia Africa Latin America)문학포럼으로 승계되어 매년 열리고 있다. 인천AALA문학포럼은 1958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1988년 튀니지대회 이후 끊어진 AA작가회의의 계승이자 “진영대립보다는 부국과 빈국간을 ‘친서방 중진국’(의 별로 친서방적이지 않은 작가들)이 매개했다”는 의미¹³⁾를 가지면서 한국문학의 세계경험 폭을 서구 중심

1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결과보고서』,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2006, 446쪽 참조.

13) 최원식, 「다시 살아난 불씨 —제 2회 인천AALA문학포럼에 부쳐」, 『평화를 위

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로 확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중간의 문학교류가 10년간의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상호 교차 방문하는 프로그램(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작가축제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작가들과 한국작가들이 교류하는 행사를 한국문학번역원, 단국대학교 등에서 각각 개최하는 등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교류 또는 한국문학의 세계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면서 외연을 넓히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작가들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창작체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작가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새롭게 눈에 띄는 현상이다. 2010년에만 해도 UC버클리-대산 한국작가레지던스프로그램, 미국 아이오와대 국제창작프로그램을 비롯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레지던스, 독일 베를린 레지던스, 프랑스 파리 7대학 레지던스, 스페인 살라망카대학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이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맺는 말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와 세계문학과와의 교류 경험은 그동안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기는 했지만 점차 유형무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해외에서의 출판된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인식이 깊어지면서 최근에는 상업적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 고인 시인이 해외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노벨문학상의 유력후보로 매년 거론되는 것을 비롯해 황석영 이승우 신경숙 김영하 등이 현지에서 높이 평가 받는 것 등은 한국문학의 눈부신 성장이자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한 상상력의 연대』 제2회 인천AALA문학포럼 발표문집, 인천문화재단, 2011, 13-16쪽 참조.

이같은 교류가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외국의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 무대나 등장인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참가한 영국의 저명한 여성작가 마거릿 드래블이 『한중록』을 모티브로 삼아 쓴 『The Red Queen』을 영국의 저명한 출판사에서 출간해 화제가 되었고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최고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르 클레지오가 한국에 관한 시를 발표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발표하는 등 외국작가들의 작품에 한국이 낱설지 않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한국을 다녀간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문학작품과 기행문 등의 산문을 비롯해 한국방문경험과 소회를 담은 기고문 등을 발표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독자들이 해외 문호들의 문학작품을 보고 그 배경이 된 장소를 이미지화하고 상상의 나라를 펼쳤던 일들이 반대로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일어 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문학은 어느 때보다 조직적으로 바깥 세계와 교류, 소통하고 있다. 이 과정이 세계문학과 한국문학과의 교류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대등한 차원에서 양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문학포럼 등을 통해 세계 문호들과 당대의 전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문학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데서 생산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는 면에서 한국문학은 바야흐로 변방의식에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중심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에너지와 열망을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문학담론을 추동하는 동력’을 보는 듯 하다는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참여한 저명한 외국작가들의 상찬이 한국문학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주소이자 지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문학이 세계인들과 함께 읽는 세계문학시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번역지원 제도와 번역과 관련한 여건, 세계문학과와의 면밀한 교류 등에 있어 정책적인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려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체계적인 번역, 출판지원 정

책수립과 집행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 집중번역 및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소개 ▲영어권 번역, 출판의 활성화 ▲지속적인 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보급을 위한 해외 한국학관련 기초여건 조성 ▲한국문학 번역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전문 행정인력 육성 등이 그것이다.

| 참고문헌 |

- 곽효환,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논문, 1998.
-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소개 현황과 과제」, 『문예중앙』 2002년 봄호, 중앙M&B, 2002.
- 곽효환, 「우리문학의 해외진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사람과 책』 2008년 8월호, 교보문고, 2008.
- 권영민,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그 실상과 문제점」,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 김성곤,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급변하는 시대정신과 세계상황 속의 삶을 논하다」, 『대산문화』 2011년 봄호, 대산문화재단, 2011.
- 김우창, 「번역과 문학의 인식 지평」, 『한국문학 해외진출 10년을 말하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문학 번역원 창립 10주년 제 5회 세계번역가 대회 논문집, 한국문학번역원, 2011.
- 김종길, 「한국문학 세계화의 현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민음사, 1997.
- 신준봉, 「번역의 ‘봄’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경험」, 『문학선』 2011년 가을호, 문학선, 2011.
- 최원식, 「다시 살아난 불씨 -제 2회 인천AALA문학포럼에 부쳐」, 『평화를 위한 상상력의 연대』 제2회 인천AALA문학포럼 발표문집, 인천문화재단, 2011.
- 한하경,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대작가 시리즈 반열에 오른 『식물들의 사생활』-佛 갈리마르 폴리오 시리즈로 재출간」, 『대산문화』 2009년 겨울호, 대산문화재단, 2011.
- 소피 버컨(Sophie Buchan), 「한국문학과 해외출판사의 선택」, 『글로벌 출판시장과 문화한류의 가능성』 제 6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발표문집, 출판도시문화재단, 2011.

안토니아 바이어트(Antonia Byatt), 「Arts Council Funding for Literature in England: An Overview」, 『문화예술지원기구 비전 전략 개발과정 세미나 -영국예술위원회의 비전 전략 및 문학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로빈 데서(Robin Desser), 「한국 문학과 해외출판사의 선택(미국편)」, 『글로벌 출판시장과 문학한류의 가능성』 제 6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발표문집, 출판도시문화재단, 2011.

브루스 플턴,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향후 10년의 전망」, 『한국문학 해외 진출 10년을 말하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창립 10주년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 발표문집, 한국문학번역원, 2011.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결과보고서』,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2006.

『2010 대산문화재단 사업보고서』, 대산문화재단, 2011.

『2010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한국문학번역원, 2011.

〈ABSTRACT〉

Post-2000 Globalization Experience and Direction of Korean Literature Content

Hyo Hwan Kwak
(Korea University)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Content is one of the long-standing desires. It is expressed as a desire in winning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but ultimately, it is another expression for Korean literature to be a citizen of the world literature and recognized as one of the them. This means that we are no more in the position of an recipient of world literature after 100 years of maturing the western concept of modernization. Korean literature is becoming the center with self-confidence within the world literature.

Such efforts of the Korean literary world as well as Korean society at large had been in progress from earlier on under the name of winning the Nobel Prize of Literature or as the name of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expressing the desire in a broad sense. The full scale effort began in 1968 stimulated by Kawabata Yasunari from Japan who won the Nobel Prize, the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the former Arts Council Korea—initiated the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Support Project' and the government started to give support as well. Such organized support was reinforced when the Daesan Foundation joined in the year of 1992 with a systematic translation support program. At present, the Daesan Foundation as a private organization and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as a public organization jump-started to introduce Korean literature to foreign countries in various and

well-organized ways. Especially, in 2000 we made some progress from the traditional ways like translation and publishing Korean literature content and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other countries in various ways and interacting with the world's literature and experiencing it.

In this article we briefly diagnose the process of Korean literature entering the world and based on this we examine the globalization or the current status of world experience and it's outcome and direction of Korean literature which has been more full-fledged and vitalized since 2000.

Key words :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world literature citizen,
interacting with foreign countries, world experience, translation,
oversea's publishing, communication, literary discussion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12.10
